



보도 일시	2022. 12. 22.(목) 15:00	배포 일시	2022. 12. 22.(목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소비자국	책임자	과장 하주식 (02-2100-2630)
	금융소비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민수 (02-2100-2631) 사무관 김하민 (02-2100-2637)

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(Financial Wellbeing) 증진을 위한 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” 추진

- '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, '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-

주요 내용

-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” 추진
 - ① [콘텐츠 내용]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,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 개발
 - * (아동·청소년) 금융투자·대리입금, (청년) 실용금융, (중·장년) 노후대비, (고령) 피해예방 등
 - ② [교육전달 방식]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매체·시설 활용
 - * (아동·청소년) 방과후 수업 등, (청년) 소셜미디어, (중·장년) E-러닝 수업, (고령) 복지관 등

I |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12월 22일(목)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'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'22년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, '23년도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【 '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요 】

- 일시·장소 : 2022.12.22.(목) 15:00~16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 - 참석기관
 - 금융위·교육부·공정위·기재부·행안부·복지부·고용부·여가부 및 금융감독원
 -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협회, 소비자단체, 연구단체 등 17개 관계기관*
- * 예금보험공사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주택금융공사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,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, 한국금융교육학회, 금융소비자보호재단, 금융연구원, 한국소비자원, YWCA, 금융협회(6개)

-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‘코로나19 발생’과 ‘정보통신기술의 발달’로 금융교육은 지난 3년간 “대면·일방향 교육”에서 “비대면·양방향 교육”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.
 - 다만, 이와 같은 ‘금융교육 패러다임(Paradigm)의 변화’가 “모든 연령층에 동일한 결과(Outcome)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.”라는 점을 지적*하며,
 - * (1) “아동·청소년”의 경우, 교육 집중시간이 짧아 비대면 보다는 대면교육이 효과적,
 - (2) “고령층”도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경우,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기 어려움,
 - (3) “성인”의 경우, 생업·육아 등으로 바빠 시·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
 - 금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“금융교육 국가전략(National Strategy)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이에, 금융교육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를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“맞춤형 금융교육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구체적으로, 금융소비자를 생애주기에 따라 5개의 계층*으로 구분하고, 이에 대응하는 금융교육협의회 내 실무협의체(WG)를 보다 활성화하여,
 - * [WG 1] 아동·청소년층, [WG 2] 청년층, [WG 3] 중·장년층, [WG 4] 고령층, [WG 5] 특수계층 (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, 신용유의자)
 - '23년에는 이 5개의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”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상황을 감안할 때,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에게 현명한 소비와 저축, 적절한 투자와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며,
 - 향후,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“금융역량”을 갖추고 더 나아가 “금융웰빙*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*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,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 (美,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(CFPB))

- (추진배경) 최근 금리·물가·환율의 상승과 자산가격 변동 등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정교한 금융 의사결정능력(금융역량)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 -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교육을 통해 필요한 금융지식, 금융행동* 및 금융태도**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[금융행동] 소득지출관리, 재무설계, 금융거래 등에서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
 - ** [금융태도]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,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지 등 가치관
 - 이를 위해,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, 태도 및 행동이 다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“맞춤형 전략”이 필요합니다.

➔ 따라서,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*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「'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」을 마련했습니다.

*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교육기관 참여 (8.30일, 9.22일, 11.18일)

- (추진방향) '23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웰빙 증진을 목표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① [콘텐츠 내용]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, 금융 관련 의사결정 및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*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·제작하고,
 - * (아동·청소년) 금융투자기초, 대리입금 예방, (청년) 주거비마련, 학자금대출 취·창업, (중·장년) 노후대비, (고령) 피해예방, (특수계층) 사회정착, 금융거래, 신용관리 등
 - ② [교육전달 방식]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전달매체나, 시설·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전달·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'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세부내용은 **【참고】** 및 **【별첨】** 확인

- (향후계획) 금번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금융교육 추진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,
 - 연구·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재 금융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금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※ (별첨1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
 (별첨2) '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(안건)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주식 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2-2100-2631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	책임자	부국장	강형구 (02-3145-5972)
		담당자	수 석	류한은 (02-3145-5961)

추진방향

목표

- ◆ 금융소비자의 **생애주기별 특성** 및 **핵심 금융역량**을 고려하여
 - (1) 금융소비자에게 **필요한 금융교육 콘텐츠**를 개발하고,
 - (2) 금융소비자에게 **적합한 방식으로 전달·실시**하여,
 → 금융소비자의 **“금융웰빙(Financial Wellbeing)”** 증진

세부내용

아동·청소년층 (“재미있고 유익한 교육”)	청년층 (“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”)
▶ (내용) 투자원리, 불법사금융 예방 * 주식 모의투자, 대리입금 피해예방 등 ▶ (방식)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활용 * 방과후 수업, 자유학년제, 창의체험활동 등	▶ (내용)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* 창업, 취업, 주거마련, 학자금대출 등 ▶ (방식) 소셜미디어 활용 ‘숏폼’ 교육 *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콘텐츠 제작
중·장년층 (“편리하고 쓸쓸한 교육”)	고령층 (“찾아가는 합동 교육”)
▶ (내용) 노후 대비, 자녀 금융교육 * 노후 자산관리, 장기 재무설계 등 ▶ (방식) 시·공간 제약없는 비대면강의 * 온라인(“e-learning”) 과정 확대	▶ (내용) 금융피해 예방, 디지털역량 강화 * 보이스피싱, 착오송금반환, 상속채무 등 ▶ (방식) 직접 찾아가는 교육 * 금융사랑방버스, 복지관 등 연계
특수계층 (“기관 연계 교육”)	
▶ (장애인) 교구재 제작, 전문강사 양성 ▶ (다문화가정) 외국어교재 제작, 원격교육 ▶ (북이탈주민) 기관·금융상품 연계교육 ▶ (신용유이자) 유관기관 활용 신용교육	



연구·조사기능 강화

- ▶ 「연구·조사 협의체」 신설
 * 금융교육 연구동향, 금융교육 실태 조사
- ▶ 금융역량조사 실시

협의회 참여기관 확대

- ▶ 협의회 구성에 주택금융공사 추가
 * 중·장년층, 고령층 실무협의체에 참여

참고2

금융웰빙 (Financial Wellbeing) 개념 및 중요성

- (정의) “금융웰빙”이란,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,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
 - (美)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(CFPB)*는 금융웰빙을 ‘미래의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로운 금융선택이 가능한 상태’로 정의
 - *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(CFPB)
 - (英) 자금연금자문청(MAS)*은 ‘금융역량(financial capability)의 강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단계’라고 설명
 - * Money Advice Service(MAS)

<그림> 금융역량의 5단계 (英)



- (해외사례) 美·英 등 선진국은 ‘금융교육 국가전략(National Strategy)’ 수립시 “금융웰빙” 달성을 국가전략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제시
 - (美) '11년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장차 달성해야 할 금융교육의 비전으로 ‘모든 미국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금융웰빙*’을 제시
 - * [금융웰빙 4요소] 현재(Present), 미래(Future), 안전성(Security), 선택의 자유(Freedom of Choice)
 - (英)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명칭을 기존에는 “금융역량 전략”으로 사용(15년)했으나, “금융웰빙을 위한 전략”으로 수정(20년)
- (시사점) 금융웰빙은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금융웰빙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금융교육이 필요
 - 금융웰빙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
 - 다만, 각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 개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학습하여 여러 금융상황에 대응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음
 - ⇒ 따라서, “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 향유”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전략 수립이 중요